

# 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## 2013 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

산업연구원 | KIET 산업경제 | 2013.7.9
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?sub\\_num=12&state=view&idx=43253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12&state=view&idx=43253)

세계경기는 천천히 회복되며 유가는 소폭, 원/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  
연간 국내경제는 2.7%, 민간소비는 2% 중반 증가

- 국내 경기상황 판단
  - 실물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나 회복세는 미약
  -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거나 증가율은 낮은 편
  - 내수는 투자가 다소 회복된 반면, 민간소비는 부진
  -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
- 대외여건 전망
  - 하반기 세계 실물경기는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나 회복세는 완만
  - 유가는 소폭 하락하여 연평균 102 달러 내외(두바이유 기준)
  - 원/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주요국의 양적완화 등에 따라 단기 등락
- 2013 년 국내경제 전망
  - 국내경제는 하반기에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2.7% 성장
  - 하반기 실물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대외적으로는 유로권 위기,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
  - 민간소비는 하반기 2%대 후반, 연간 2%대 중반 증가
  -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,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전환
  - 수출은 연간 3.8% 증가, 수입은 3%대 초반 증가로 무역흑자 확대

## 2013 년 하반기 산업 전망

---

산업연구원 | KIET 산업경제 | 2013. 7.9
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12&state=view&idx=43252&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12&state=view&idx=43252&)

IT와 조선이 수출을 견인하며 하반기 수출은 9.6%(연간 4.4%), 수입은 5%(연간 3.9%) 증가  
IT 제조업과 일반기계 주도로 내수 증가, 10대 주력산업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상승세로 전환

- 2013년 하반기 10대 주력산업의 전망
  - 수출은 IT와 조선이 견인하며 하반기 9.6%(연간 4.4%) 증가
  - 철강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상반기보다 증가하고 연간으로도 증가
  - 내수는 IT 제조업과 일반기계 주도로 상반기 대비 증가
  - 수입은 하반기 5%(연간 3.9%) 증가하며 상반기보다 확대
- 하반기 주력산업 전망의 특징
  - 조선산업이 하반기 수출 호조를 견인
  - IT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력산업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
  - 일반기계는 수출이 약 10% 성장하며 주력 수출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
  - 철강은 중국의 재고 과잉, 엔저, 국제철강 가격 약세 등으로 5% 이상 수출 감소
  - 10대 주력산업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2년 하반기 68%에서 금년 하반기 70%로 증가
- 정책적 시사점
  -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신흥시장 등으로 수출지역 확대
  - 유망 수출품목의 발굴과 제품 차별화 전략의 강화
  - 차세대 및 융합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강화로 미래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
  -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차원에서 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환경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

#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 진단

삼성경제연구소 | CEO 인포메이션 제 901 호 | 2013.7.3

<http://www.seri.org/db/dbReptV.html?menu=db02&submenu=&pgno=1&pubkey=db20130703001>

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2013 년 말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며 유로지역의 긴축완화는 불가피  
한국은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

- 6大 경제현안 진단

- 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2013 년 말 이후로 지연될 전망
- ② 유로지역은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인해 긴축완화가 불가피
- ③ 하반기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
- ④ 중국은 도시화, 사회보장 확대, 중산층 증가 등으로 투자 및 수출 주도 성장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점진적 전환이 가능
- ⑤ 한국은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 큰 위협
- ⑥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인 부채축소 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부채축소는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

- 종합판단 및 시사점

-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이 예상되는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
-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외환건전성 규제강화와 가계부채 문제의 점진적 개선을 추진
- 정부는 일자리 창출,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활력을 제고
-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체질을 개선

# 2013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: 경기 호전되나 회복속도는 완만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3.7.17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45&srctype=0&srchword=>

##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되며 연간 3% 초반 성장

## 국내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되며 수출이 국내경기 회복 주도

- 세계경제 전망
  -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되며 연간 3% 초반 성장
  - 미국의 경제회복과 유로존의 침체 탈피 등 선진국의 경제활력 고조
  - 중국은 정부의 성장견인 역할 축소로 장기적인 감속이 불가피
  - 하반기 선진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 둔화
  - 금리상승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신흥국 중심으로 자본이탈 우려도 상존
- 국내경제 전망
  - 경제상황은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엔저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중국의 성장둔화는 우리 경제회복의 저해 요인
  - 선진국의 수요회복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
  -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, 건설투자도 침체에서 탈피
  - 금리상승으로 소비의 회복은 빠르지 않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
  -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%대(연간 2.8%), 소비자물가는 1.4% 수준
  - 경상수지는 500억 달러 돌파, 원/달러 환율은 하반기 1,100 원대
  - 자영업 취업자의 감소로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해보다 감소
- 시사점
  - 하반기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
  -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금융시장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
  - 내수부양을 위한 수요중심의 단기대책,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문의 규제완화와 혁신지원 등 공급측면의 대책이 필요
  - 부채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국내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피해야 할 것

# 2013 년 하반기 경제 전망\*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6.21

[http://www.hri.co.kr/download.asp?file\\_path=%2Fpublication%2F&file\\_name=201371104516%5B1%5D.pdf](http://www.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71104516%5B1%5D.pdf)

##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 3.3%, 민간소비 증가율 2%대 초반 소비자물가 하향 안정화, 실업률 소폭 개선, 환율 제한적 상승세

- 2013 년 하반기 대외 여건 변화
  - 선진국은 국가별로 경기회복 방향과 속도가 다르고 신흥국은 경제성장세를 되찾겠지만 이전만큼 빠르지는 않을 전망
  -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
  - 미국경제의 회복세 전환과 양적완화 축소, 유럽경제의 침체 지속에 따른 유로화 약세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자금이동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
- 2013 년 하반기 국내경제 전망
  -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.3%(연간 2.6%)
  - 민간소비 증가율은 고용시장 개선과 자산 효과 등으로 2%대 초반
  - 설비투자는 연간 1.0%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는 회복세 기대
  - 수출은 회복되나 회복세는 제한적이며 경상수지 호조는 지속
  -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도 하향 안정되겠지만 일부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
  - 실업률은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
  - 환율은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상승폭은 제한적

\* 이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(2013.6.24) 『상반기 경제의 5 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』의 별첨 자료입니다.

# 하반기 산업경기의 5 대 특징과 산업전망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3.6.26

[http://www.hri.co.kr/download.asp?file\\_path=%2Fpublication%2F&file\\_name=20136288348%5B1%5D.pdf](http://www.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6288348%5B1%5D.pdf)

## 내수·수출산업 모두 경기회복 국면 진입과 수출경기 회복 가시화

## 서비스업은 제한적 성장, IT 산업은 경기회복 가속화, 구조불황산업은 경기개선 가능성 존재

-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
  - IT 제조업은 빠른 회복, 석유화학산업은 회복추세 지속, 해운업은 제한적인 경기회복 전망
  - 건설·조선업은 경기 저점 통과, 자동차·기계산업은 경기 저점 형성 후 회복 국면 진입
  - 철강산업은 침체 국면에 위치
- 하반기 산업경기의 5 대 특징
  - ① 내수·수출 산업 모두 경기회복 국면 진입, 수출산업의 성장기여도 증가 예상
  - ② 하반기 수출경기의 회복 가시화, 생산재 수출은 소비재보다 더딘 회복세
  - ③ 서비스업의 성장속도는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공공이 민간보다 호조 예상
  - ④ IT 산업의 경기회복 가속화로 IT 산업과 비IT 산업의 경기 격차 발생
  - ⑤ 해운·조선·건설업 등 구조불황산업의 수요증가로 경기상황 개선 가능성 존재
- 시사점
  - 미약한 경기회복세 진작을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
  - 수출산업의 성장견인력 극대화를 위해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
  - 서비스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 요구
  - IT 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
  - 구조적 불황산업의 기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

# 상반기 경제의 5 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6.21

[http://www.hri.co.kr/download.asp?file\\_path=%2Fpublication%2F&file\\_name=201371104516%5B1%5D.pdf](http://www.hri.co.kr/download.asp?file_path=%2Fpublication%2F&file_name=201371104516%5B1%5D.pdf)

## 지표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악화, 실업률과 고용률은 모두 하락 비은행권의 부실가능성 고조, 부동산경기 추가하락 가능성

- 2013 년 상반기 경제의 5 대 패러독스
  - ① 지표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악화
  - ② 수출 회복세는 미약하나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는 확대
  - ③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하락
  - ④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%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물가불안 심리는 가중
  - ⑤ 유동성은 풍부하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고조
- 2013 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
  -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 주시가격은 하락하고 원/달러 환율과 금리의 상승이 전망되나 원유, 원자재, 곡물 등 상품가격의 하락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
  - 아베노믹스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경기 급락 우려
  - 유럽의 경제침체 지속으로 국내 수출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
  -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확대와 경기부진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우려
  -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버블 붕괴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 고조
  - 부동산경기의 추가하락 가능성과 회복부진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
- 대응 과제
  -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
  - 유럽경기의 추가 침체와 중국의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
  -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 방지
  - 부동산 경기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 필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 
email: [urbandata@si.re.kr](mailto:urbandata@si.re.kr)  
phone: 02-2149-1022